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egional Housing Prices on the Age at Marriage and
the Timing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도 난 영 (Nan Young Do)** · 최 막 중 (Mack Joong Choi)***

〈 Abstract 〉

As one of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becomes a critical social problem in Korea,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burden of housing costs delays marriage and sequentially discourages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using the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data of 2000–2014 period.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marriage and survival analyses for childbirths, different effects are identified: The higher the housing prices in the area where newly married couple chooses to live (regional housing prices) are, the higher the marriage age of both bride and bridegroom is. Nevertheless the time interval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 is not affected by regional housing prices. It is rather the timing of second childbirth that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burden of housing costs. As regional housing prices become higher, the time interval between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of rental households increases while the probability of second childbirth of monthly renters is lower than that of *Chonsei* (lump-sum up-front deposit system) rent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ousing policies aimed at coping with low fertility be articulated focusing on preventing a delay of marriage and especially on encouraging the second childbirth which is essential in preventing a population decrease.

키워드 : 지역주택가격, 주거비용, 결혼연령, 출산시점, 둘째 자녀

Keyword : Regional Housing Prices, Housing Costs, Marriage Age, Childbirth
Timing, Second Child

*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archiny@naver.com, 주저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macks@snu.ac.kr, 교신저자

I. 서론

2005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08로 하락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초저출산¹⁾ 현상은 개별 가구의 차원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결혼에 따른 가구의 형성은 독립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고(Haurin et al., 1993)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주거면적의 증가 등 주거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이삼식·최효진, 2012).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선진국에 비해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아직 일천하며, 특히 결혼과 출산을 일련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지닌다. 먼저 결혼에서부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택과정을 단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가구형성 및 확대의 과정을 연계하는 변수는 결혼연령,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첫 출산간격), 첫 자녀 출산 후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둘째 출산간격)이다. 이는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실질적 가임기간의 감소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듯이(은기수, 2001; 유홍준·현성민, 2010),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출생아 수(quantity)의 감소에서 그 원인이 되는 일련의 구조적 과정인 결혼과 출산 시기(tempo)의 지연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은기수, 2005)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 지연이 첫 자녀 출산연령을 높이고, 이는 다시 추가 출산을 중단시켜 전체적으로 출산력을 낮추는 연쇄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던 결혼여부, 자녀 수, 출산확률이나 출산율 대신 본 연구에서는 결혼연령과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의 시점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 특히 출산에 대한 영향을 첫째

1)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1.3명 이하인 경우를 지칭하는데, Kohler et al.(2002) 등이 1990년대 동유럽, 남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의 시대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이래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왔음.

자녀와 둘째 자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역시 본 연구가 추구하는 중요한 차별적 특징이다. 첫째와 둘째 자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둘째 자녀의 출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첫째 자녀의 출산 이후 둘째 자녀의 출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임여성 1인당 요구되는 출생아 수인 대체출산율은 선진국의 경우 2.1명으로,²⁾ 이는 둘째 자녀의 출산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주택가격이 둘째 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적으로 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첫째 자녀보다 둘째 자녀의 출산이 좀 더 계획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김정석, 2007).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둘째 자녀의 출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밖에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성별 효과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그리고 출산시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영향이 점유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자가와 임차가구를 분리하여 각각 살펴보는 특징도 갖는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0년~2014년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에 기초하며, 분석모형으로는 결혼연령에 대해 다중회귀모형, 그리고 출산시점에 대해 생존모형을 각각 적용한다. 이후 제II장에서는 결혼과 출산 및 주거비용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III장에서 분석자료와 모형, 변수 구성에 관한 분석틀을 정립한다. 제IV장에서 기초통계와 함께 다중회귀모형과 생존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하고, 제V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의 영향요인과 주거비용

결혼과 출산은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는

2)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은 UN Population Division 등에서 정의되고 있음(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pdf/popfacts/PopFacts_2017-3.pdf).

가구를 형성, 확대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주거비용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결혼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는 처음 Becker(1973, 1981)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결혼은 남성의 시장노동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업(sexual division of labor)에 의한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그 효용이 미혼에 비해 더 커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된다. 그리고 남녀 간 전문화로 발생하는 효용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소득이 낮아지거나 여성의 소득이 높아지면 효용이 감소하여 결혼을 미루게 된다. 따라서 결혼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교육수준, 임금, 직업의 안정성 등 경제적 변인에 대한 실증연구로 이어졌으며, 대표적으로 Keeley(1977)는 남성의 결혼연령이 임금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반면, 여성의 결혼연령은 임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여 Becker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이후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된 실증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이다(최새은·옥선화, 2003; 우해봉, 2009).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Becker, 1981; 조병구 외, 2007).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높은 여성이 주택 마련 등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결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Oppenheimer, 1997; Sweeney, 2002). 남성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는데, 고학력 남성이 결혼가능성이 높고 결혼연령이 낮지만(박경숙 외, 2005; 유홍준·현성민, 2010), 직업을 갖기까지 투자되는 시간으로 결혼이 늦어질 수 있다(은기수, 1995).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남성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결혼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Cooney and Hogan, 1991; Oppenheimer et al., 1997).

한편 개인의 경제적 자원을 넘어 외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주택가격의 경우 그 영향은 집계(aggregate)자료를 이용한 거시분석을 통해 포착되기도 한다. 지역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높으면 혼인율이 낮아지고(Gholipour, 2015), 시·도별 매매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결혼건수와 혼인율이 감소하고 남성의 결혼연령은 높아지며(이상호·이상헌 2011), 시·도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모두 혼인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현상(천현숙 외, 2016)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계자료를 통해 결혼과 같은 개인의 선택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혹은 집계편향(aggrega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다(이상호·이상현, 2011).³⁾

이에 비해 개인자료에 기초한 미시분석은 주로 생존모형을 통해 주택가격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Ermisch and Di(1997)는 거주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독립된 가구의 형성 확률을 낮추면서 여성의 분가 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바 있으며, Ermisch(1999)에 따르면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확률이 낮아지는 대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Di and Liu(2006)에 의하면 임대료 변화율과 분가 확률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연구의 경우 이상호·이상현(2011)은 거주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그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게 받지만, 여성에게는 결혼여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의철(2012)과 정의철·임미화(2013)도 전세가격 또는 그 변화율이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결혼여부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듯이 결혼 확률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아니었다. 또한 본 연구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진행된 강정구·마강래(2017)의 경우 생존분석을 통해 거주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을 지연시키고,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모두 발견되는 현상임을 검증하였다. 한편 이상의 연구에서 자녀의 소득수준은 지역주택가격과는 반대로 가구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Ermisch, 1999; Di and Liu, 2006; 정의철, 2012).⁴⁾

2. 출산의 영향요인과 주거비용

Becker(1981)의 경제학적 논리에 따르면 출산 역시 가구소득과 출산에 따른 양육비용 등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부모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출산과 양육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 이에 따라 남성의 소득이 높으면 출산시점이 빨라지지만, 여성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출

3) 또한 주택가격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 주택가격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함.

4) 이와 관련하여 강정구·마강래(2017)는 분석과정에서 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출산이 늦어진다(민희철, 2008; 배호중·한창근, 2016). 마찬가지로 여성이 근로를 하는 경우 출산 확률이 감소하고(류기철·박영화, 2009),⁵⁾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째, 둘째 자녀의 출산시기가 늦어지거나 출산연령이 높아진다(이삼식 외, 2005; 김태현 외, 2006). 다만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첫 자녀의 출산시기가 빨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우영, 2007).

한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는 주거면적 증가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므로, 주거비용은 양육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OECD, 2011; Dettling and Kearney, 2014). 이에 주거문제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이삼식·최효진, 2012) 주거생활비나 대출상환금이 높을수록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천현숙 외, 2016)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택임대료가 높으면 결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자녀수는 감소하며(Simon and Tamura, 2009),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Yi and Zhang, 2010)가 관찰된다. 다만 Clark(2012)은 높은 주택가격이 첫 출산을 지연시키지만, 자녀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⁶⁾

그런데 유의할 것은 주택가격의 영향이 점유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임차가구와 달리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고(김준형·최막중, 2010), 이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Dettling and Kearney, 2014; 김민영·황진영, 2016). 이는 자가가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시기가 빠르고 자녀수가 많다는 사실(Krishnan, 1995; 배호중·한창근, 2016; 천현숙 외, 2016)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⁷⁾ 동일한 맥락에서 모기지(mortgage)가 잘 발달되고 주택소유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반면, 모기지가 발달되지 않아 주택소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관찰된다(Mulder and Billari, 2010). 이에 따라 자가와 임차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높은 주택가

5) 김사현(2009)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에도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그리고 서비스직에 비해 생산직인 경우 출산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6) 이상의 연구들에서도 통제변수로 사용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높은 임금 및 교육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됨.

7) 배호중·한창근(2016)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주택가액에도 비례하여 출산시점이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남.

격이 임차가구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가 가구의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Lovenheim and Mumford, 2013; Dettling and Kearney, 2014).

그럼에도 자가소유 효과는 주택보유 전·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택구입비용과 출산에 따른 양육비용은 상호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Courgeau and Lelievre, 1992).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고 노동활동에 집중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목격되며(Myer, 1985; Rudel, 1987), 이러한 현상은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일수록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Haurin et al., 1993; Sato, 2007). 이에 따라 Murphy and Sullivan(1985)에 의하면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결혼부터 첫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결혼시점에 있어서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평균 결혼연령이 가장 높은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어 결혼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주택을 소유한 이후 출산시기가 빨라지는 현상(Mulder and Wagner, 2001)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해석하면 높은 주택가격이 주택 마련을 위한 임차가구의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의 노동활동을 촉진시키는 대신 출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미숙(2013)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자가 거주자보다 전세 거주자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집계자료에 기초한 김민영·황진영(2016), 천현숙 외(2016)의 국내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시·도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첫 자녀 출산연령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진행된 임보영 외(2018)는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단계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거주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⁸⁾

이상 지역주택가격과 결혼 및 출산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개괄하면 저출산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선진국에 비해 국내연구 성과는 아직 일천하고 분석결과도 파편화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에서부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구의 선택행위에 지역주택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통합적으로 비교

8) 임보영 외(2018)의 경우 단일 연도(2015년)의 횡단면 자료에 의거함으로써 종속변수인 자녀수가 역으로 맞벌이 여부 등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제 결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주택의 입지로 선택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III. 분석틀

1. 분석자료의 구성과 분석모형

본 연구결혼에서 첫째, 둘째 자녀 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는 동일한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반복조사를 하는 패널자료가 효과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이용한다.⁹⁾ 한국노동패널은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매년 조사되어 왔는데, 결혼시점에 대한 정보가 온전하게 제공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¹⁰⁾ 본 연구의 진행시점에서 가장 최근이었던 2014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부터 생성하는 세 개의 종속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결혼연령, 첫 출산간격, 둘째 출산간격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00년~2014년에 결혼한 신혼가구를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시점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을 산출한 다음, 다시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출산시점에서 둘째 자녀 출산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출하는 순서를 밟는다.

이에 따라 결혼에 대한 분석(이하 결혼분석)은 결혼여부가 아닌, 이미 결혼을 선택한 관측치만을 갖고 결혼시점(연령)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루게 되므로 분석모형으로는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모형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결혼에 이어지는 출산에 있어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아직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중도절단(censored) 관측치들이 포함된다. 이에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이하 출산분석, 첫째출산분석, 둘째출산분석)에는 생존(survival)모형을 적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와이블(Weibull)모형의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한편 첫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9) 일반적으로 출산분석에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횡단면 자료로 과거의 결혼시점이나 출산시점에서의 소득, 취업여부, 주택점유형태 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10) 1999년 자료까지는 결혼시점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결측치가 너무 많음.

경우에는 둘째 자녀도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출산 기간에 대한 확률은 첫째 출산 가구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된다. 따라서 둘째출산분석에서는 첫째를 출산하지 않은 관측치가 제외되지만, 남아있는 관측치는 결혼에서부터 이어지는 동일한 가구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결혼 및 첫째, 둘째 출산 분석을 위한 세 개의 분석자료는 패널자료가 아닌, 결혼과 첫 출산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00년~2014년에 걸쳐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는 관측치들을 사건발생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통합한 횡단면(pooled cross-section) 자료로 이루어진다.¹¹⁾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에는 본원적으로 남녀의 성별효과가 게재되어 있고, 출산에 있어서는 점유형태에 따라 지역주택가격이 상반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분석은 남성과 여성 집단을, 그리고 출산분석은 자가와 임차가구 집단을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결혼연령에 대한 성별 분석을 위해 신혼부부 가구자료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개인특성 자료로 변환된다. 이에 비해 출산시점에 대한 점유형태별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구특성 자료를 활용하며, 이를 위해 먼저 주택보유시점에 따라 결혼시점부터 주택을 보유한 경우(A유형), 결혼 후 첫 출산 전에 보유한 경우(B유형), 첫째 출산 후 둘째 출산 전에 보유한 경우(C유형), 둘째 출산시점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D유형)를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첫째출산분석에 있어서는 A, B유형을 자가가구, C유형을 임차가구로 설정하고, 나아가 A유형과 B유형 사이에도 출산시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출산분석에 있어서는 A, B, C유형이 자가가구, D유형이 임차가구로 분류되며, 첫째 출산시점에서 이미 자가였던 A, B유형과 C유형 사이에도 출산간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임차가구의 경우에도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주거비용이 첫째나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2. 변수 구성

핵심 독립변수인 지역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노동패널 응답가구의 시·군·구 거주지 정보를 매개로 하여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의 시·군·구별 주택매매가

11) 이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에서 분가(결혼)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상이한 관측치들을 사건 발생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통합하여 횡단면 자료를 구축한 예는 이길제·최막중(2017)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격을 결합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위면적(m^2)당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동 자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시점별 차이를 보정한다.¹²⁾ 결혼분석은 물론 첫째 출산분석의 경우 결혼시점에서 신혼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적용하고, 둘째출산 분석에서는 첫 자녀 출산시점에서 거주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대응시킨다. 그 이유는 생존 분석에서 첫 자녀 출산의 위험(hazard)은 결혼시점부터 시작되고, 둘째 자녀 출산의 위험도 첫 자녀 출산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 중도절단된 가구의 경우 출산시점에서의 지역주택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김준형·최막중(2009)에서와 같이 결혼시점이나 첫 출산시점에서의 거주지역은 곧 주거입지에 대한 신혼가구의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가 반영된 결과, 즉 신혼가구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정한다. 지역주택가격을 비롯하여 후술하는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은 모두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의거하여 2010년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지역주택가격 외에 통제 목적의 독립변수로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수집할 수 있는 응답가구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점을 통일해야 하는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경우 개인특성에 초점을 맞춘 결혼분석에서는 개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그리고 가구특성에 기초한 출산분석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출산분석에서는 가구의 총자산¹³⁾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추가된다.¹⁴⁾ 이와 함께 소득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급경제활동에의 참여를 기준으로 실업여부를 고려한다. 출산분석에서는 실업여부를 가구주(남성)를 기준으로 하고, 대신 배우자(여성)의 취업여부를 출산과의 경합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추가한다. 이에 비해 결혼분석에서는 결혼 전 분가여부와 취업기간의 두 변수를 추가한다. 결혼 전 분가여부는 분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으로 신혼주택비용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결혼연

12)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2000~2002년 시·군·구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2003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또한 한국감정원의 자료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http://land.naver.com/article/>)의 지역별 시세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또는 주변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사용하거나 동일시점의 주변지역 시세로 대체하여 보완함.

13) 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경우 자가는 시가, 전·월세는 임차보증금으로 산정함.

14) 결혼분석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결혼 1년 전 시점의 개인특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는 관측치가 많아 개인의 자산을 분리 산정할 수 없음.

령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박미선 외, 2017)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취업기간은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된 변수로 주된 일자리의 취업시점부터 결혼 1년 전(취업자의 경우) 또는 그 이전의 실직시점까지의 기간(실업자의 경우)으로 산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분석에 사용되는 개인의 근로소득, 실업여부, 결혼 전 분가여부와 취업기간은 모두 결혼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결혼연령과의 인과관계에 있어 내생성(endogeneity)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¹⁵⁾ 생존모형을 이용하는 출산분석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과 순자산은 지역주택가격과 동일한 이유로 첫째출산분석에서는 결혼시점, 둘째출산분석에서는 첫째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가구주의 실업 및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첫째출산분석에서는 결혼~첫출산, 둘째출산분석에서는 첫출산~둘째출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외에 결혼과 출산분석에 공히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학이상으로 구분한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이상의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역혼을 금기시하는 전통적 규범에 따라 출생순위가 올라가면 결혼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인수, 1994)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시대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결혼코호트(cohort)로(은기수, 2001),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08년 전·후로 코호트를 분류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

2000년~201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혼가구 가운데 재혼인 경우, 결혼 전 출산을 하거나 별거, 이혼, 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구구성 형태가 부부 및 부부+자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로만 한정하여 구축한 자료는 1,114가구로, 이로부터 개인 및 가구특성의 결측치 등을 제외하고 결혼과 출산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자료를 추출한다. 이에

15) 예를 들어 개인의 취업여부가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결혼연령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결혼시점에서의 취업여부가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도록 실업(취업)여부를 결혼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따라 실제 결혼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개인특성의 결측치와 이상치¹⁶⁾를 제외하고 남성 446명, 여성 415명으로 구성된다. 첫째출산분석에서는 가구특성의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외하고 659가구의 관측치가 이용되었으며,¹⁷⁾ 이 중 자가 239가구, 임차가 420가구에 이른다. 자가가구 중 결혼시점부터 자가인 경우(A유형)가 179가구, 결혼~첫출산 사이에 자가로 전환된 경우(B유형)가 60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는 49가구이다. 마찬가지로 둘째출산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576가구로,¹⁸⁾ 자가 339가구, 임차 237가구로 구성된다. 자가가구 중 첫출산시점에서 자가였던 경우(A, B유형)가 239가구, 첫출산~둘째출산 사이에 자가로 전환된 경우(C유형)가 138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는 30가구이다.

결혼 및 첫째, 둘째출산분석의 세 가지 종속변수와 공통적인 핵심 독립변수인 지역주택가격의 분포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1>에 나와 있다. 결혼연령의 경우 평균값은 남성 30.9세, 여성 28.1세로, 이는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통계에서 2000년~2016년 평균 결혼연령으로 집계된 남성 29.3~32.8세, 여성 26.5~30.1세의 범위 내에 있다. 첫째출산분석에서는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전체 659가구 중 534가구로 81.0%를 차지하고 나머지 125가구는 중도절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첫 자녀를 출산한 비율은 자가가구 82.8%, 임차가구 80.0%로 비슷하다. 첫 출산간격은 중도절단 가구를 포함하여 평균 약 21.5개월로 나타나며, 자가가구가 24.5개월로 임차가구 19.9개월에 비해 소요기간이 더 길다. 둘째출산분석에서는 첫 자녀를 출산한 576가구 중 58.9%인 339가구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첫째 자녀에 비해 출산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자가가구의 경우 56.9%, 임차가구 경우는 61.6%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임차가구의 출산비율이 조금 높다. 둘째 출산간격은 중도절단 가구를 포함하여 평균 38.3개월이며, 자가가구의 경우가 43.6개월로 임차가구의 경우 30.85개월에 비해 훨씬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배우자(여성)의 첫 자녀출산연령은 평균 29.4세이고,

16) student 잔차값이 ± 3 이상인 경우임.

17) 결혼 후 6개월 이내 출산한 가구는 배호중·한창근(2016)에서와 같이 결혼과 함께 출산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가정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였고, 동일한 조건에 따라 조사시점이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구도 제외함. 또한 콕스(Cox)생존모형의 lmax 영향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대 출산기간을 기준으로 결혼 후 10년 이상 출산을 하지 않은 3가구는 이상치로 제외함.

18) 첫째출산분석과 동일하게 첫 출산 후 6개월 이후에 둘째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조사시점이 첫 자녀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구와 첫 출산 시 쌍둥이 출산으로 둘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대신 첫째출산분석에서 첫 출산시점이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외하였던 가구는 둘째출산분석에 포함함.

자가가구 29.6세, 임차가구 29.1세로 양 집단간 차이는 거의 없다. 시·군·구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을 기준으로 2010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지역주택가격의 경우, 결혼분석에서 평균값은 293만원이지만, 최소값 58만원, 최대값 1,303만원으로 지역간 주택가격수준의 차이가 22배가 넘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 첫째출산분석에 있어 지역주택가격은 평균 281만원이고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303만원까지 분포한다, 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가가가 평균 245만원, 임차가가가 평균 302만원으로, 임차가가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둘째출산분석에서도 지역주택가격은 평균 282만원, 최소 87만원, 최대 1,303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자가가가

〈표 1〉 핵심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혼연령 (세)		전체	861	29.51	3.71	22	47	
		남성	446	30.85	3.87	22	47	
		여성	415	28.07	2.92	22	39	
첫 출산간격 (개월)	전체	659	출산	534(81.0%)	21.51	17.02	6	110
			절단	125(19.0%)				
	임차	420	출산	336(80.0%)	19.82	15.64	6	110
			절단	84(20.0%)				
	자가	239	출산	198(82.8%)	24.47	18.88	6	110
			절단	41(17.2%)				
둘째 출산간격 (개월)	전체	576	출산	339(58.9%)	38.34	26.12	6	146
			절단	237(41.1%)				
	임차	237	출산	146(61.6%)	30.85	18.86	6	120
			절단	91(38.4%)				
	자가	339	출산	193(56.9%)	43.58	29.08	6	146
			절단	146(43.1%)				
지역 주택가격 (만원)	결혼 분석	전체	861	293.06	179.85	58.48	1,303.3	
		남성	446	296.24	176.55	58.48	1,303.3	
		여성	415	289.64	183.48	79.48	1,198.7	
	첫째 출산 분석	전체	659	281.19	171.23	87.12	1,303.3	
		임차	420	301.75	191.44	87.12	1,303.3	
		자가	239	245.07	120.35	92.03	998.06	
	둘째 출산 분석	전체	576	282.02	181.22	86.99	1,303	
		임차	237	320.32	213.64	86.99	1,303	
		자가	339	255.24	149.16	88.20	1,303	

평균 255만원, 임차가구 평균 320만원으로 임차가구가 주택가격수준이 좀 더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상에서 평균값과 최소, 최대값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가격은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갖고 있어 이를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로그값을 취해 변수화한다. 이에 따라 추정계수는 지역주택가격의 비율(%) 변화에 대한 결혼연령 또는 출산확률(보다 엄밀하게는 출산위험)의 변화로 해석된다. 가구총소득의 경우에도 고소득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분포를 보여 로그값을 취한다.

2.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신혼가구를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¹⁹⁾ 결정계수(R^2)값이 남성집단 0.421, 여성집단 0.478로 모형의 설명력은 나쁘지 않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IF)값은 최대 3.21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지역주택가격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주택가격이 한 단위(100%) 높아지면 평균적으로 남성의 결혼연령은 약 0.649세($=0.936 \cdot \ln([100+100]/100)$), 여성의 결혼연령은 약 0.586세($=0.845 \cdot \ln([100+100]/100)$) 높아진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 공히 결혼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혼주택 마련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결혼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간접적으로 남성의 결혼연령을 높여 이와 연동하여 여성의 결혼연령도 높아지는 효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통제변수의 경우 남녀 모두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취업기간이 길어 직업이 안정적인수록, 실업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 그리고 결혼 전 분가하여 생활비 부담이 클 경우에 결혼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증가하지만, 여성집단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마찬가지로 결혼코호트의 경우 남녀 모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적 영향으로 결

19)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탐지되어 robust 옵션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화 잔차값이 ± 3 이상인 이상치는 제거함.

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여성집단에서만 유의하다. 이에 비해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첫째일 경우 결혼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대신 주로 경제적 요인이 결혼연령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논리에 의하면 소득이 높고 취업기간이 길어 직업이 안정적인수록 여성에게는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결혼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기대소득이 높아져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나 분가로 인해 생활비가 클 경우에 남성은 결혼을 미룰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결혼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남성의 시장노동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업을 통한 효용 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집단을 통합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추정

〈표 2〉 결혼연령에 대한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coef.	p>t	beta	VIF	coef.	p>t	beta	VIF	coef.	p>t
ln지역주택가격	0.936***	0.001	0.124	1.03	0.845***	0.000	0.153	1.06	0.874***	0.000
근로소득(천만원)	0.484***	0.009	0.157	2.14	0.514***	0.001	0.178	3.21	0.549***	0.000
교육수준 (대학이상=1)	0.128	0.757	0.014	1.12	0.640**	0.016	0.1	1.12	0.372	0.121
실업여부(실업=1)	1.652***	0.009	0.141	1.90	2.670***	0.000	0.387	2.90	2.379***	0.000
결혼전 취업기간	0.045***	0.000	0.528	1.36	0.041***	0.000	0.630	1.47	0.043***	0.000
결혼전 분가여부 (분가=1)	1.181***	0.000	0.153	1.13	0.773***	0.006	0.106	1.11	1.030***	0.000
출생순위(첫째=1)	-0.278	0.331	-0.035	1.05	-0.173	0.413	-0.028	1.01	-0.235	0.189
결혼코호트 (2009~2014=1)	0.259	0.389	0.033	1.10	0.454*	0.075	0.076	1.21	0.313	0.112
성별(남성=1)	-	-	-	-	-	-	-	-	2.267***	0.000
상수	20.73***	0.000			18.56***	0.000			18.61***	0.000
표본수(N)	446				415				861	
결정계수(R ²)	0.421				0.478				0.514	

*** p<0.01, ** p<0.05, * p<0.1

한 결과도 <표 2>에 축약하여 포함하였는데, 교육수준과 출생순위, 결혼코호트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고 모형의 설명력(R^2)도 0.514로 증가한다.

3. 지역주택가격이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출산분석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자가와 임차가구 집단을 분리하여 네 개의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산이 관찰되지 않아 중도절단된 관측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생존분석을 이용한다. 생존분석에서는 임의 시점에서의 출산위험을 나타내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추정하기 위해 생존기간에 대한 분포를 가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위험의 변화를 가정하는 모수적(parametric) 방법으로 Heckman and Walker(1990), 민희철(2008), 김사현(2009)에서와 같이 와이블(Weibull)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²⁰⁾ 생존분석에서 양(+의 추정계수값은 출산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반대로 음(-)의 계수값은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정계수값에 지수를 취하면 출산위험이 1배 이상 커지거나 또는 그 미만으로 작아짐을 의미하는 위험률비(hazard ratio)로 전환된다.

한편 출산분석에서 교육수준은 가구주와 배우자간 상관관계가 높아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대신 출생순위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첫째출산분석에서는 배우자의 결혼연령, 그리고 둘째출산분석에서는 첫째출산연령을 각각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연령에 따른 출산시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을 빨리하려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²¹⁾를 포착하기 위해 첫째출산분석의 결혼연령은 2차함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둘째출산분석에서는 결혼~첫출산 소요기간을 추가하였으며,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진 분포를 가져 로그값을 취하였다. 한편 자가га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첫째출산분석에서는 결혼~첫출산 사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B유형), 둘째

20) 와이블 모형 외에 준모수적 방법으로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가장 편리하게 이용되는 콕스 비례위험(Cox proportional hazards) 모형도 적용해 보았는데, 네 개의 분석에서 와이블과 콕스 모형 모두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에 따른 모형의 유의성이 확인되고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크기, 유의성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그럼에도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등의 기준에서 와이블 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기저(base line)위험함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위험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 와이블 모형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21) 통계청 보도자료, 2017. 11. 20.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4쪽 참조.

출산분석에서는 첫출산~둘째출산 사이 자가로 전환한 경우(C유형)를 각각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1) 첫 출산간격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주택가격은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어 높은 주택가격으로 첫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방향성은 관찰되지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전세에 비해 월세가 첫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유의한 변수는 배우자의 취업여부로, 여성의 취업은 결혼 후 출산을 늦추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사이의 경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결혼연령이 올라가면 양(+)의 계수값으로 출산이 빨라지는 ‘따라잡기 효과’가 나타나다가 일정 연령을 초과하면 제곱항이 음(-)의 값으로 출산이 늦어지는 비선

<표 3> 첫째 출산시점에 대한 생존모형 추정결과

구 분	임차가구			자가가구		
	coef.	p>z	hazard ratio	coef.	p>z	hazard ratio
ln지역주택가격	-0.174	0.133	0.84	-0.087	0.639	0.917
임차 점유형태(월세=1)	0.166	0.376	1.18	-	-	-
주택구입시점(결혼~첫출산=1)	-	-	-	-1.003***	0.000	0.367
배우자결혼연령	0.928***	0.000	2.529	-0.346	0.312	0.708
배우자결혼연령2	-0.016**	0.000	0.984	0.006	0.334	1.006
ln총소득	-0.045	0.552	0.956	0.168	0.111	1.183
순자산(천만원)	0.009	0.305	1.009	0.003	0.669	1.003
배우자 교육수준(대학이상=1)	0.154	0.215	1.167	-0.042	0.815	0.959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0.218	0.576	0.804	-1.106**	0.011	0.331
배우자 취업여부(취업=1)	-0.463***	0.000	0.629	-0.338**	0.024	0.713
가구주 출생순위(첫째=1)	-0.145	0.213	0.865	0.267*	0.096	1.306
결혼코호트(2009~2014=1)	-0.229*	0.096	0.796	-0.142	0.390	0.867
상수	-15.90***	0.000	0.000	-0.515	0.917	0.598
/ln_p, p	/ln_p=0.386*** p=1.471			/ln_p=0.482***, p=1.62		
Log-likelihood(LL)	-442.9 $\chi^2=51.1$ ***			-238.5 $\chi^2=66.9$ ***		
AIC, BIC	AIC=911.7, BIC=964.3			AIC=502.9, BIC=548.1		
N	420			239		

*** p<0.01, ** p<0.05, * p<0.1

형관계가 유의하게 관찰되는데, 그 변곡점은 약 29세로 추정된다. 결혼코호트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결혼한 임차가구에서 거시경제 영향으로 첫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 가구소득, 순자산, 교육수준, 가구주의 실업여부와 출생여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높은 지역주택가격이 결혼 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보유에 따른 자산효과와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그렇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는 주택구입시점의 영향으로, 결혼시점부터 주택을 보유한 경우(A유형)에 비해 결혼 후 첫 출산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B유형)에 첫 출산간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지면서 출산위험이 0.367배(=exp(-1.003))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후 주택구입비용과 첫 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경합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결혼시점에서 여성이 취업한 경우는 첫 출산을 지연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구주의 실업 역시 첫 출산을 유의하게 늦추고 있다. 또한 출생순위에 있어 가구주가 장남일 때 자가가구의 첫 출산이 유의하게 빨라지지만, 임차가구와는 달리 배우자 결혼연령이나 결혼코호트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외에 가구소득, 순자산, 교육수준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임차가구와 공통적이다.

2) 둘째 출산간격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주택가격이 한 단위(100%) 높아지면 첫 출산가격과는 달리 둘째 출산간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지고 출산위험은 0.688배(=exp(-0.374))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전세에 비해 월세가구의 경우 첫 출산 후 둘째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길고 출산위험은 0.255배(=exp(-1.366))까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출산분석 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둘째 자녀에서부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배우자의 첫째출산연령에 따른 둘째 출산간격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첫 출산간격이 길어지면 둘째 출산간격도 유의하게 길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따라잡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 후 첫 출산이 늦어지면 둘째 출산시점이 더욱 늦어져 출산도 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첫 출산에 비해 둘째 출산에 있어서는 여성의 취업여부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지만, 대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둘째 출산시점이 유의하게 지연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외에 가구소득, 순자산, 가구의 실업여부와 출생순위, 결혼코호트는 둘째 출산시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첫째출산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택가격이 둘째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음(-)의 계수값을 갖고 있어 주택보유에 따른 자산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주택구입시점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결혼시점부터 첫 출산 전까지 주택을 보유한 경우(A, B유형)에 비해 첫출산~둘째출산 사이에 자가로 전환한 경우(C유형)에 둘째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첫째출산분석에서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첫째출산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첫 출산간격이 길수록 둘째 출산간격이 유의하게 길어진다. 이는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따라잡기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도 다시

〈표 4〉 둘째 출산시점에 대한 생존모형 추정결과

구 분	임차가구			자가가구		
	coef.	p>z	hazard ratio	coef.	p>z	hazard ratio
ln지역주택가격	-0.374**	0.029	0.688	-0.05	0.767	0.951
임차 점유형태(월세=1)	-1.366***	0.000	0.255	-	-	-
주택구입시점(첫출산~둘째출산=1)	-	-	-	-0.148	0.355	0.863
배우자 첫 자녀출산연령	-0.022	0.477	0.978	-0.096***	0.000	0.909
ln첫 출산간격	-0.309**	0.039	0.734	-0.268**	0.017	0.765
ln총소득	0.038	0.747	1.039	0.062	0.618	1.064
순자산(천만원)	0.02	0.242	1.021	0.022**	0.015	1.022
배우자 교육수준(대학이상=1)	-0.622***	0.001	0.537	-0.278	0.106	0.757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0.283	0.443	1.327	-0.858*	0.093	0.424
배우자 취업여부(취업=1)	-0.331	0.109	0.718	-0.065	0.680	0.937
가구주 출생순위(첫째=1)	-0.088	0.627	0.916	-0.035	0.823	0.965
결혼코호트(2009~2014=1)	-0.028	0.914	0.972	0.205	0.366	1.228
상수	-4.202***	0.001	0.015	-3.516**	0.012	0.03
/ln_p, p	/ln_p=0.737*** p=2.091			/ln_p=0.489*** p=1.631		
Log-likelihood(LL)	-175.485 $\chi^2=44.48$ ***			-313.154 $\chi^2=38.62$ ***		
AIC, BIC	AIC=377.0, BIC=422.1			AIC=652.3, BIC=702.0		
N	237			339		

*** p<0.01, ** p<0.05, * p<0.1

한번 확인시켜 준다. 또한 첫째 출산시점에서 가구주가 실업상태에 있었을 때 둘째 자녀의 출산위험이 낮아지는 반면, 순자산이 많으면 둘째 출산시점이 빨라지는 현상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 가구소득, 배우자 취업여부와 교육수준, 가구주의 출생순위와 결혼 코호트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주거비용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출생아 수의 감소에서 그 원인이 되는 결혼과 출산 시점의 지연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주택가격의 영향을 결혼에서부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연쇄적 과정의 맥락에서 단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특징적 초점을 맞추었다. 2000년~201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신혼가구 자료를 토대로 결혼연령은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그리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은 생존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유의하고도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후 출산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첫 출산간격은 지역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 일단 늦게라도 결혼을 하면 첫 출산은 주거비 부담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늦은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 출산을 앞당기는 '따라잡기 효과'까지 나타난다. 다만 자가가구 중에서도 결혼~첫출산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첫째 출산이 늦어지고 있어 첫 출산의 경우에도 내집 마련과의 경합관계가 포착된다. 그럼에도 주거비의 부담이 훨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둘째 출산간격이다.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고 출산확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전세에 비해 월세가구에서도 둘째 출산간격이 길어져 첫째 출산의 경우와는 차별화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결혼연령의 상승을 방지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설계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보다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특히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의 출산이 보다 계획적인 결정에 의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계조건인 둘째 자녀의 출산에 정책적 관심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주택공급과 주택자금지원에 있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은 결혼연령과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예정자와 유자녀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결혼예정자에 대한 혜택은 부재하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둘째 출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부터 해당하므로(국도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2조) 둘째 출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자금지원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있어 결혼예정자에 대한 혜택은 존재하지만 자녀수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이 없고, 전·월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지원도 3자녀부터 해당하므로²²⁾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결혼연령에 대한 성별 효과나 출산시점에 대한 자가가구의 자산효과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결혼연령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정책은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가가구라도 저출산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통제변수 중에서는 일자리 관련 변수가 주거비용 관련 변수만큼 결혼과 출산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업은 남녀 모두 결혼연령을 높일 뿐 아니라 자가가구의 첫째, 둘째 출산시점을 모두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임차와 자가가구 모두에서 첫 출산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 주거비의 부담을 저감시키려는 주택정책은 청년 일자리의 확충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여성의 취업에 따른 출산의 기회비용을 저감시

22) <http://nhuf.molit.go.kr> 참조.

키기 위한 보육정책과 함께 부처 간 정책패키지로 통합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실제 결혼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 중 결혼연령에 대한 영향은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표본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고문헌

1. 강정구·마강래, “지역의 주택가격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pp.97-110.
2. 김민영·황진영,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204-238.
3. 김사현,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pp.113-137.
4. 김우영,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07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07, pp.1-26.
5. 김정석,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 출산계획,” 『한국인구학』, 제30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07, pp.97-116.
6. 김준형·최막중,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44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pp.109-118.
7. 김준형·최막중,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대 효과,” 『주택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10, pp.5-26.
8.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6, pp.1-23.
9. 류기철·박영화,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9, pp.1-23.
10. 민희철, “임금 및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41-61.
11. 박경숙·김영혜·김현숙,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혼 성역할 분리 규범

- 경제조정의 유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제2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05, pp.33-62.
12. 박미선·강미나·임상연,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2017.
 13. 배호중·한창근,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204-238.
 14. 서미숙,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여성경제학회, 2013, pp.63-79.
 15. OECD,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1.
 16. 우해봉,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9, pp.25-50.
 17. 유홍준·현성민,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10, pp.75-101.
 18. 은기수,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제1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1995, pp.89-117.
 19.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권 제6호, 한국사회학회, 2001, pp.105-139.
 20. 은기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제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25-35.
 21. 이길제·최막중,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 이전과 성별효과,” 『주택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17, pp.35-62
 22. 이상호·이상현,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결혼 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17권 제3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1, pp.131-166.
 23.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4. 이삼식·최효진,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5. 이인수, “한국여성의 결혼 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1940, 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pp.252-261.
 26. 임보영·강정구·마강래,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53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pp.137-151.
 27. 정의철,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8권

-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2, pp.19-31.
28. 정의철·임미화,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주택학회, 2013, pp.119-139.
 29. 조병구·조운영·김정호, 『출산 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7.
 30. 천현숙·이길제·김준형·윤창원, 『주택과 출산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2016.
 31. 최재은·옥선화, “30대 기혼 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제8권 제1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3, pp.53-73.
 32.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보도자료),” 2017. 11. 20.
 33. Becker, G. S.,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4, 1973, pp.813-846.
 34. Becker, G. S., *A treatise on the famil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35. Clark, W. A. V., “Do Women Delay Family Formation in Expensive Housing Markets?,” *Demographic Research*, Vol. 27 No. 1, 2012, pp.1-23.
 36. Cooney, T. M. and D. P. Hogan, “Marriage in an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First marriage among American men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3 No. 1, 1991, pp.178-190.
 37. Courgeau, D. and E. Lelièvre, *Interrelations between first home-ownership, constitution of the family, and professional occupation in France, Demographic applications of event history analys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p.120-140.
 38. Dettling, L. J. and M. S. Kearney,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10, 2014, pp.82-100.
 39. Di, Z. X. and Liu, X., “The Effects of Housing Push Factors and Rent Expectations on Household Formation of Young Adult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Vol. 28 No. 2, 2006, pp.149-166.
 40. Ermisch, J. and P. Di Salvo,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Young People’s Household Formation,” *Economica*, Vol. 64 No. 256, 1997, pp.627-644.

41. Ermisch, J., "Prices, Parents, and Young People's Household Form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45 No. 1, 1999, pp.47-71.
42. Gholipour, H. F. and M. R. Farzanegan, "Marriage crisis and housing costs: Empirical evidence from provinces of Iran,"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37 No. 1, 2015, pp.107-123.
43. Haurin, D. R., P. H. Hendershott and D. Kim, "The impact of real rents and wages on household form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5 No. 2, 1993, pp.284-293.
44. Heckman, J. J. and J. R. Walker,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Vol. 58 No. 6, 1990, pp.1411-1441.
45. Keeley, M. C., "The economics of family formation," *Economic Inquiry*, Vol. 15 No. 2, 1977, pp.238-250.
46. Kohler, H. P., F. C. Billari and J. A. Ortega,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8 No. 4, 2002, pp.641-680.
47. Krishnan, V., "Effect of housing tenure on fertility," *Sociological Spectrum*, Vol. 15 No. 2, 1995, pp.117-129.
48. Lovenheim, M. F. and K. J. Mumford, "Do Family Wealth Shocks Affect Fertility Choices?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5 No. 2, 2013, pp.464-475
49. Mulder, C. H. and M. Wagner, "The connections between family formation and first-time home ownership in the context of West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7 No. 2, 2001, pp.137-164.
50. Mulder, C. H., "Home-ownership an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 21 No. 3, 2006, pp.281-298.
51. Mulder, C. H. and F. C. Billari,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 Fertility," *Housing Studies*, Vol. 25 No. 4, 2010, pp.527-541.
52. Murphy, M. J. and O. Sullivan, "housing tenure and family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 No. 3, 1985,

- pp.230-243.
53. Myers, D., "Wives' earnings and rising costs of homeownership,"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66 No. 2, 1985, pp.320-329.
54. Oppenheimer, V. K.,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3 No. 1, 1997, pp.431-453.
55. Oppenheimer, V. K., M. Kalmijn and N. Lim,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Vol. 34 No. 3, 1997, pp.311-330.
56. Rudel, K, "Housing Price Inflation, Family Growth and Move from Rented to Owner Occupied Housing," *Urban Studies*, Vol. 24 No. 4, 1987, pp.258-267.
57. Sato, Y., "Economic geography, fertility, and migr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61 No. 2, 2007, pp.372-387.
58. Simon, C. J. and R. Tamura,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 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9 No. 1, 2009, pp.33-42.
59. Sweeney, M. M.,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7 No. 1, 2002, pp.132-147.
60. Yi, J. and J. Zhang, "The effect of house price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g Kong," *Economic Inquiry*, Vol. 48 No. 3, 2010, pp.635-650.
61. land.naver.com/article, 네이버 부동산 지역아파트 시세.
62. 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pdf/popfacts/PopFacts_2017-3.pdf, UN Population Division.
63.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
- 접수일 2018. 04. 23.
 - 심사일 2018. 05. 09.
 - 심사완료일 2018. 05. 22.

국문요약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주거비용의 영향을 결혼에서부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연쇄적 과정의 맥락에서 단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2014년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에서 추출한 신혼가구 자료를 토대로 결혼연령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그리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을 생존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결혼과 출산에 유의하고도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후 출산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첫 출산간격은 지역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 일단 늦게라도 결혼을 하면 첫 출산은 주거비 부담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고 출산확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전세에 비해 월세가구에서도 둘째 출산간격이 길어져 주거비의 부담이 훨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혼연령의 상승을 방지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의 출산이 보다 계획적인 결정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계조건인 둘째 자녀의 출산에 정책적 관심이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